

세계는 디자인 혁명시대: 디자인 특집 방송

1983

디자인진흥원사

- 전두환 대통령 '디자인산업 육성' 지시
- 「디자인·포장」지를 「산업디자인」과 「포장기술」로 분리 발간
-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공업디자인' 부문을 '제품 및 환경디자인'으로 변경

한국 디자인사

- KBS 1TV 「세계는 디자인 혁명시대」 방영
- 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설립
- 서울을림픽 엠블럼, 마스코트 발표
- 금성 제1회 《산업디자인 공모전》 개최
- 삼성 제1회 《굿디자인전》 개최
- 새한자동차 대우자동차로 개칭
- 금강기획 설립
- 민산업디자인연구소(MIDA) 창립
- 서울그래피티센터 창립

한국 사회사

- 이웅평 귀순
- 이산가족찾기 TV생방송(남한, 해외 대상 총 453시간 45분 단일주제 연속 생방송 세계기록)
- 삼성전자 세계 세 번째로 64K DRAM 개발
- 삼성전자 퍼스널컴퓨터 SPC-1000 출시
- 베마 아옹산묘소 폭발 사건
- 현대중공업 조선산업 세계 1위 달성

제품의 품질과 기술을 강조하던 시기인 1983년, KBS는 「세계는 디자인 혁명시대」를 방영했다. 제1편 「기업 디자인: 새 모델에 사운을 건다」, 제2편 「디자인 전문 회사: 멋과 성능을 팝니다」, 제3편 「디자인 교육: 기술, 예술, 학문」, 제4편 「스포츠 산업: 또 하나의 올림픽」, 제5편 「전시와 상술: 진열장 속의 전쟁」, 제6편 「한국 디자인 점검: 아름다움에의 도전」 총 6부작으로 구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디자인계에서 항상 지적해 온 한국 디자인의 문제점을 비롯해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디자인과 기술, 예술, 학문이 접목된 미래 지향적 디자인, 한국 디자인이 나아갈 방향 등을 주제로 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을 기획, 취재했던 KBS 경제부의 방윤현 기자는 “앞으로는 우리도 과거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수출만으로 다른 경쟁 상대국과의 싸움에서 이겨 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중략)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정부가 먼저 인식하고 이에 대해 지원을 해나가야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부 내에 디자인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죠. 매스컴의 인식부터 새로워질 때 우리나라의 디자인도 점차 서광이 비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텔레비전을 통한 매체 파급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하던 당시, 이 프로그램은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제

대로 없었던 우리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디자인의 가치를 이해시켰고, 정부와 관련 업계에는 한국 디자인의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했다.

「세계는 디자인 혁명시대」 이후 11년 만인 1994년에 MBC, KBS는 또다시 디자인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가치를 발휘하고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어떤 점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좀 더 밀도 있게 접근한 프로그램들이었다. 1994년 4월에 방영된 MBC의 디자인 특집 프로그램의 주제는 「왜 디자인인가?」이며, 제1편 「꿈을 꾸는 사람들」, 제2편 「자연에서 나온다」, 제3편 「미래는 아름다움이」 3부작으로 구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디자인의 세계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어 5월에 방영된 KBS의 「디자인에 승부를 걸어라」는 정경원 교수가 리포터를 맡아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제1편 정상의 조건(기업편), 제2편 경쟁력의 해결사(전문 회사편), 제3편 신국부론(교육편), 제4편 한국 산업디자인의 현주소(한국편)로 구성됐다.

이후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생기자 산업이 아닌 문화로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읽으며 디자인을 경제, 문화와 접목한 특집 방송을 제작하였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2000년 12월 6일과 7일에 방영된 SBS의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21세기 생존 전략 디자인」이다. 제1편 「디자인 경영 시대」, 제2편 「디지털 혁명, 디자인 혁명」 총 2부작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장기적 호황과 냉전 종식,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서 감성 디자인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다.

2001년 10월 5일 MBC에서는 1부 「디자인, 디지털에 접속하다」, 2부 「디자인, 문화의 중심에 서다」라는 소주제로 연속 방영된 「신디자인 혁명」을 제작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집중 조명하면서 최첨단 문화를 리드하는 디자인을 기획 취재하였다. 이러한 두 프로그램은 당시 김대중 정권의 「국민의 정부」가 가졌던 디자인 정책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